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스포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바이오인더스트리 컨벤션에 한국계 기업들이 참가해 전시를 하고 있다. 약 200여 기업에 참가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향후 10년 인력 모자라다

바이오테크놀로지교육재단의 바이오 인력 보고서
향후 10년간 32% 증가한 4만 2천 여명 인력 필요
주정부, 보스톤 시 등 고졸 전문직 적극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바이오 인력시장은 미국내 다른 지역보다 급성장 추세에 있으며 향후 커다란 바이오 인력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한인 및 한국 학생들에게 보스톤 바이오 시장은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바이오테크놀로지교육재단(MassBioEd)의 지난달 31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바이오 인력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14.6%가 증가해 미국내 9.4% 증가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기간 동안에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는 2.6% 하락했다.

▶▶7면으로 계속

캐나다 산불, 동북부 20년만 최악의 연기 사태

매사추세츠 공기질 나쁨 경보 한지들에게겐 위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캐나다 퀘벡 주 등지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6월 6일 보스톤 동북부가 많은 연기로 뒤덮이는 등 20년만에 최악의 연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6일에는 거의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상태였다.

매사추세츠 환경청은 이번 주전역에 공기질 나쁨 경보를 내렸다. 이 같은 공기는 수요일 자정까지 매사추세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 연기는 캐나다 퀘벡주 인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 보스톤을 비롯한 미 동북부에 영향을 주었다.

과거 서부의 산불로 인한 연기가 보스톤 지역까지 날라온 경우는 있었지만 이는 높은 상공에 머물렀으며 햇빛은 흐리게 가리거나 하는 정도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거의 지상 근처까지 내려와 공기의 질을 나쁘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8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842.3158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최저 코드를 스타디움 카카오톡 채팅창에 입력하여 카카오톡 채널 연구신청을 해주십시오. 양질의 신문 저를 경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보스톤 바이오 인터내셔널컨벤션 500여 한국 대표단 참여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200여 기업들 보스톤 컨벤션에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의 시포트 보스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스톤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2023 BIO International Convention)에 약 200여개 기업과 5백여명의 한국 바이오업계 대표단이 참여했다.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사이언스 컨퍼런스 2023 보스톤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에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40개 국에서 약 2만2천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바이오업계의 최신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킹 및 각종 사업계약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스톤 컨벤션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보스톤에서 처음 치러지는 바이오업계 국제 행사이지만 2018년 보스톤컨벤션 당시 참여자 1만6천명을 훨씬 뛰어넘어 더 행사규모가 훨씬 커졌다.

2018 보스톤 바이오국제컨벤션에는 한국의 바이오 붐이 한창 시작되던 시기로 역대 최대인 850명의 한국 바이오 및 제약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외국인으로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두번째로 많은 수의 참가자

였었다.

그러나 올해는 관련 업계 종사대표단 수는 528명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코리아바이오 메디컬리뷰가 통상산업자원부 발표를 인용한 집계 따르면 올해 참가자들은 544명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255명에 비해 2배 증가했다.

반면 참여 기업은 급증했다. 2023년 보스톤 바이오국제컨벤션에는 한국에서 200개 기업이 참여해 2018년 당시 단 5개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여전히 중국(700), 일본(500), 독일(400)에 비해서는 갈길이 멀었다.

올해 참여 한국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T Pharm 등 대형 제약사와 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 그리고 바이오 벤처 기업들로 구성됐다.

올해는 중국 바이오업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36여개 기업에서 2,700명의 바이오업계 관련자들이 참여해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했다. 뒤를 이어 독일(1600), 일본(1100), 영국(1000), 프랑스(550)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9위였다.



컨벤션에 참여한 한국 바이오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늘 전시회장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령탕
SEUL SEOLRYEOM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총영사배 로드아일랜드 태권도대회 800여명 참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총영사배 로드아일랜드 태권도대회가 로드아일랜드 소재 이스트그린위치 고등학교에서 선수, 사범,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보스턴총영사관과 월드클래스 태권도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태권도 대회에는 데이빗 시실리니 연방하원, 세트 매가지너 연방하원의원, 유기준 총영사 그리고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소재 태권도 사범들이 참여했다.

총영사배 로드아일랜드 태권도대

회는 올해로 37번째 내려오는 유서 깊은 대회다. 이날 대회장인 홍진섭 관장은 시실리니, 매가지너 연방하원에게 각각 국기원 명예 5단증을 수여하고 송판 격파 시범을 진행했다.

매가지너 의원은 태권도복을 입고 검은띠를 두르고 한식으로 점심을 나누며 태권도의 정규교육 채택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책임자에 이에 대해 전달했다.

홍진섭 회장은 로드아일랜드 워릭학군(Warwick school)과 협력해 전체 13개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올해 9월 학기부터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예산확보 등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홍 회장은 새롭게 당선된 매가지너 의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시실리니 의원은 지난달말로 의원직을 은퇴했으며 로드아일랜드재단 회장직을 맡아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시합은 홍진섭 관장의 두 아들 홍일표, 홍기표 사범이 맡아 진행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실리니 의원(사진 우측)과 매가지너 의원(좌측)이 태권도복을 입고 홍진섭 관장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지난해 6월 태극기 달기 행사(보스턴코리아 자료사진)

보스턴 평통, 참전용사 묘비 태극기 달기 행사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하여 6월 17일 윈체스터와일드우드묘지(Winchester Wildwood Cemetery)에서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한 참전용사 묘비, 성조기와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묘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달아 이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시한다. 보스턴 평통위원들은 이국땅에서 유명을 달리해 아무도 찾지 않는 참전용사들의 묘지를 청소하고 태극기를 다는 행사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묘지에 낯선 미국인의 이름이지만 태극기가 걸려 있다면 묘지에 묻힌 이는 한국전 참전용

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평통은 “이를 통해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추념의 장이 되고, 전 후세대인 학생들과 지금 이곳 보스턴에 거주한 한인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함은 물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수호의 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평통은 행사 후 브런치를 제공한다.

날짜 : 6월 17일 (토) 오전 9-11시

장소 : Winchester Wildwood Cemetery (34 Palmer St, Winchester MA 01890)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한국 납세의무자,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재외동포서비스지원 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벤쿠버 =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한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 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매매를 위해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기관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작년 9월에는 한국국세청 양동훈 소득지원국장을 비롯해 김지민 조사관, 김한석 사무관, 구자은 사무관, 그리고 박정미 조사관 등 5명이 벤쿠버를 방문해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한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 이날 설명회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해외금융제도,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증여세, 그리고 해외탈루소득 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 준비를 총괄한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은 정문헌 종로구청장, 국민대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함께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동포콜센터를 개통하였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오늘 문을 연 통합민원실과 연중 24시간 동포콜센터(02-6747-0404)와 함께 비대면 영사민원24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외동포청과 소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해외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통합민원실과 동포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대상 민원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HINGHAM AFFORDABLE HOME OWNERSHIP LOTTERY

29-31 Rhodes Circle (2) 3BR Units \$220,000
Condo fee \$200/mo. Asset limit: \$75,000

Income limits:
1P \$62,732 2P \$71,694 3P \$80,656
4P \$89,580 6P \$96,766
App deadline 7/28/23 Free LEP translation.

Info meeting 6/28/23 @ 6 pm via Zoom
Meeting ID: 831 8904 5193 Passcode: 028959

Lottery 8/2/23 @ 6 pm via Zoom
Meeting ID: 836 9829 8334 Passcode: 810438

Info & apps: LA Assoc. (978) 758-0197
fax (978) 657-7333 kriscoستا@laassoc.com
www.laassoc.com Town Hall & Public Library
TTY: 711, 978-758-0197

5월의 영하 한파 올가을 과실 수확에 큰 피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5월 하순 밤 영하(화씨 32도)의 기온이 매사추세츠 과수원 농가에는 커다란 피해를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베리, 딸기, 사과, 그리고 다른 과실들은 봄철을 맞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으나 5월 18일 밤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지난 2월 사상 최대의 북극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과실 수에게 5월 봄철에 찾아든 영하의 추위는 원투펀치의 위력을 발휘했다.

매사추세츠과수농과협회(Massachusetts Fruit Growers Association)의 벤 클락 회장은 “2월의 한파와 5월의 한파는 정말 전례없는 시련”이라고 지적했다.

디어필드의 클락데일프룻농장의 소유주인 클락 회장은 “약 80%의 포도, 자두, 배 그리고 사과 열매에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일부 매사추세츠 과일 농장들은 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커다란 피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클락 회장은 “아주 소수의 농장만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약 25%에 달하는 열매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물론 뉴잉글랜드에서 변화무쌍한 날씨를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5월 하순에 3일 연속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5월 10일 서부 매사추세츠의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으며 5월 25일에는 마타스 비너드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5월 18일은 낮에도 유례없이 추웠으며 해가 지면서 급속히 온도가 내려갔다. 이처럼 늦은 봄의 추위는 뉴잉글랜드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트레버 하디 뉴잉글랜드채소 및 과일재배협회 회장은 밝혔다.

하디 회장은 “이처럼 광범위하게 추위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 다수의 과실 수확이 사라졌다. 2월의 강추위로 배가 피해를 입었고 5월의 추위 피해로 사과가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제대로 수익을 내

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농무부는 연방 농무부와 함께 현재 농가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 연방 재난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의 지역 농가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틀리의 소비스키리버밸리농장은 약 1만여 블루베리 과실 수중 75-80%가 피해를 입었다.

이 농장은 농작물 피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20에이커 크기의 농장 운영을 위해 온라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농장들은 서리 피해에 대비해 히터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추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방지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클락



농장은 40에이커 농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약 1과 2분의 1에이커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안가의 농장들은 다행히 온도가 내륙지방만큼 급격히 내려가지 않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노스 앤도버의 스몰락 농장은 지난 봄의 서리에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2월 강추위 당시 배나무에 큰 타격을 입었다. 5-6에이커에 달하는 배나무에서 단 하나의 배꽃도 피지 않고 있다고 마이클 스몰락씨는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무들은 죽지 않았다는 점이다.

렉싱턴의 윌슨팜은 대부분 작물을 잃지 않았다.

5월 18일 4에이커에 달하는 작물들에게 커버를 씌웠으며 토마토와 고추 등의 작물은 밤에 온실로 옮겼다.

뉴햄프셔의 리치필드에 있는 농장의 경우 한 직원이 새벽 화씨 32도가 되는 시간까지 기다려 딸기작물에 새벽 4시 스프링클러를 틀어 얼음으로 감싸 작물을 보호했다.

윌슨씨는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보스톤 정관장 보낸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Dorchester, MA 01950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 (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aurn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캐나다 산불 연기 동북부에 이어 남부까지 위협

바이든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화해 지원 약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은 데 이어 미국 남부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 산불 연기가 이날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남쪽 지역까지 도달하면서 남동부 일대 대기질을 저하시킨 것으로 관측됐다.

켄터키주 루이빌 대기오염관리국은 산불 영향으로 이날부터 8일 밤까지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이날 주 전체에 적색 또는 주황색 대기질 경보

를 발령하고 어린이나 노인 등 민감한 인구가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건환경통제부는 대기질 경보를 내리면서 "산불 연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국립기상청(NWS) 지청 역시 주중부 지역의 대기질이 8일까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지역보다 더 남쪽에 있는 조지아주에서도 이날 밤 애선스와 애틀랜타 서쪽 일부 카운티의 대기질

이 '민감한 집단의 건강에 유해'한 수준이었다.

NWS 애틀랜타 지청은 캐나다 산불 연기가 이날 밤까지 조지아 북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쳐 연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은 연기가 뒤덮은 뉴욕과 워싱턴DC 등 미국 동부 지역은 항공기가 결항하고 각종 공연·행사가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등 일상이 마비됐다.

연방 항공 당국은 심한 연무로 이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일부 항공편을 취소시켰다. 뉴저지주 뉴크리버티 공항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도 가시거리가



분석 기사 20230608

짧아져 1~2시간 지연운행이 계속됐다.

캐나다 산불 연기로 뿌옇게 변한 뉴욕 센트럴파크 일대 하늘

뉴욕 일대 해변이 8일까지 폐쇄된 가운데 브로드웨이 유명 뮤지컬 '해밀턴'의 7일 공연은 배우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해 취소됐다. 또 센트럴파크 야외무대에 올려지는 '햄릿'의 8~9일 공연도 취소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예정됐던 실내·외 공연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연기됐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예정이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와 여자프로농구·축구 일정도 변경됐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관광객용 마차 운행도 중단된 가운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역시 산불 연기로 고생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은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는 동물들을 가장 먼저 실내로 들여왔다. 이들 동물은 추가 환기장치가 달린 건물에서 지내게 된다.

토론토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책임자인 그랜트 퍼니스는 특히 공기 질에 민감한 새들을 가장 먼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와 시러큐스의 동물원들은 대기질 수준이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에 이르자 야생동물을 단았다.

로체스터의 세네카 공원 동물원은 직원들이 대기질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으며 악화할 경우 일부 동물을 실내로 들여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화해 "과도적이고 전례 없는 캐나다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가용 연방 소방자산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두 정상은 또한 산불 예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지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n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매사추세츠 바이오 향후 10년 인력 부족 현상 겪을 것

▶▶1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 바이오테크놀로지 교육재단은 생명과학 분야의 인력은 향후 10년간 32%가 증가한 4만2천개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매사추세츠 바이오계 종사 인력은 132,000명에 달했다.

매사추세츠에서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인력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오 섹터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6천600여 핵심 인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주내 대학에서 배출하는 바이오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테크놀로지 교육재단의 서니 스와츠 대표는 “매사추세츠의 교육기관들이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인력이 더 필요하며 기존과는 다른 인력 층원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스와츠 대표는 바이오계는 현재 더 많은 인력 충원을 위해 새로운 방법의 직업 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와츠 대표는 일례로 2021

년에 20여개 회사에 인력을 공급했던 도제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특별한 훈련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Ph.D. 학위를 보유했을 것이란 인식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바이오계에서는 단지 19%만 Ph.D. 학위를 필요로 하며 10%는 학사 학위가 없어도 된다” 고 스와츠 대표는 설명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6일부터 개최된 바이오인태너셔널컨벤션 환영사에서 “우리는 매사추세츠의 생명공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고교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좋은 직업 기회와 의미있는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우리는 세계를 선도해 왔으며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것이 (생명공학)에코시스템의 힘이다. 생명공학은 우리 (MA)의 DNA이며 우리의 mRNA 속에 내재되어 있다” 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매사추세츠는 주요 학교 시스템, 연구실험실, 벤처 캐피탈, 바이오제약회사들이 풍부하게 상호연관 형성된 소위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해왔으며 모더나의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이 같은 생태계 안에서 탄생한 것이다. 힐리 주지사는 이를 언급한 것이다.

주지사는 매스탈런트(MassTalent)란 기구를 신설해 5천만달러를 투입하며 생명공학 및 각종 첨단 그린 테크 직업들과 인재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준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생명과학센터는 패스메이커란 프로그램을 통해 고교 졸업장을 가진 인력을 훈련해 생명공학에 필요한 인력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도 컨벤션 센터에서 2025년까지 1천명의 고졸 바이오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 프로그램에 4백만달러를 배정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제트기류를 타고 연기가 미국 동북부로 내려오고 있다



캐나다 산불로 뿌연게 변한 보스턴의 하늘

캐나다 산불로 동북부 20년만 최악의 연기사태

게 하고 시야를 가리며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까지 주고 있다.

아큐웨더는 7일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의 공기질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연기는 현재 미 남부 지역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지난 1999년 이래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7일 오전 보스턴의 공기질은 128로 나쁨 상태였다. 환경청은 이 같은 공기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에스마 등과 같은 폐질병 또는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 심장병 또는 폐병이 있던 사람들의 경우 오존 노출로 커다란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따라 민감한 그룹의 주민들은 가능한 야외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가능하면 비상약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총 6년간의 이민국 심사관**
Boston 개사에서 면허권과 영구권 시민권 심사
- **총 6년간의 세관 특별수사관**
NY 정부 정부 범죄예방 특별 수사
- **합계 6년 검찰**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00 State Street,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던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anusa.org

1876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원 교사 모인 및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이메일문의: 0,30~4:25)

(508)523-5389 kanusa@verizon.net
KoreanSchoolofNewEngland.com

Ch.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직접 보험 가입

617.543.8106

애플, MR 헤드셋 '비전 프로' 공개... "착용형 공간 컴퓨터"

팀 쿡 CEO "경험 못 한 첫 제품...컴퓨팅 방식 새로운 시대 시작" 수십만 개의 아이폰·패드 앱 접속...눈·손·음성으로 기기 조작

(쿠퍼티노[미 캘리포니아주]연합 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 업체 애플이 5일(현지시간) 혼합현실(MR) 헤드셋을 전격 공개했다.

애플은 이날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를 열고 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선보였다.

MR 헤드셋은 2014년 처음 공개된 애플워치 이후 애플이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이다. 1천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넘게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MR은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친 증강현실(AR)을 확장한 개념으로, 현실과 가상 간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애플은 MR이나 VR(가상현실), 증강현실(AR)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전 프로를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아이폰 이후의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에서 혹은 아이폰에서 그동안 해왔던 컴퓨팅 기능이 '비전 프로'를 통해 3차원(3D)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키 고글 형태의 '비전 프로'는 새로운 운영체제 비전OS에 사용자가 눈과 손, 음성을 통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센서를 갖췄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수십만 개의 기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앱에 접속할 수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와 물리적인 세계를 경계 없이 어우러지게

한다. 가령 '비전 프로'를 쓰고 페이스북아임 통화를 하면 이용자의 모습이 실물 크기의 디지털로 재현되며, 이용자의 표정과 손짓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용자들은 같이 영화를 감상하고, 사진을 둘러보거나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위해 협업할 수 있다.

영화를 볼 경우 화면을 100피트(30m)만큼 넓게 확장해 첨단 공간 음향 시스템을 갖춘 개인 영화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사진 보관함에 접속하면 사진과 영상을 미세한 디테일까지 보여주며 선명한 색상의 실물 크기로 체험할 수 있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새로운 R1 칩으로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가 입력한 정보를 처리해 콘텐츠가 이용자의 눈 앞에서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비전 프로는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3천499달러(약 456만원)에 판매되며 이후 다른 나라로 확장될 예정이다. 외장형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2시간 지속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컴퓨팅 방식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며 "맥(Mac)이 개인 컴퓨터를, 아이폰(iPhone)이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애플 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년 간의 애플 혁신에 기반을 둔 '비전 프로'는 새로운 혁명적인 입력 시스템과 수천개 이상의 획

기적인 기술 혁신을 선보이며 예전에 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날 또 기존 인텔 칩 대신 자체 개발 M2 칩을 탑재한 두께 11.5mm, 15인치 크기의 새로운 노트북 맥북 에어를 선보였다. 또 M2 칩 라인업을 완성하는 새로운 시스템 온 칩(SoC) M2 울트라를 공개하고, 컴퓨터 본체인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로의 아이폰을 가까이 대거나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 손쉽게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임드롭(NameDrop)과 지인이 귀가시실 시간 위치를 공유해 주는 체크인(Checkin), 사진 등을 통해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널(Journal) 앱 등 업그레이드된 iOS 17 기능도 공개했다.

taejong75@yna.co.kr



비전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팀 쿡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명부위 개별 신청서류에 자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1차	2차	3차	4차
기간	2022. 6. 1 ~ 2022. 11.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4. 12. 31	2024. 1. 1 ~ 2025. 5. 31
인원	3,177명	2,800명	2,500명	2,500명

- ▶ 4·3명부위사보(4·3)@yna.co.kr에 신청서류, 신청서, 신청금 확인 가능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사건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서 또는 행정처분 결정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대상자 포함

청구기간 ▶ 보상금 지급 결정서 또는 행정처분 결정서 발부일 3년 이내

청구서류(제외거부지)

- ▶ 보상금 지급 청구서(사행형 별지 제7호제3사)
-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치사시행형 별지 제7호제4사
-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 청구인서 인감증명서본인사행사확인서·전자본인사확인서
- ▶ (제외대상) 1.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경우
-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제외대상: 여권 및 신분증 사본 무인등록, 운전면허,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 제외대상: 여권 및 국적증사본
 - 기타 제외대상: 여권 및 주민등록번호 520 이상 521 이하 521 이상
- ▶ (제외대상) (제외 대상)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사)
- ▶ (제외대상) 신청서) 위임장(별지 사) ▶ (제외대상) 1.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소 및 연락처

도내 거주자 ▶ 명부 접수

- ▶ 제주시 지역행정과 (4·3지원) ☎ +82-64-728-1901~5
- ▶ 서귀포시 지역행정과 (4·3지원) ☎ +82-64-750-3991~4
-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청구권 및 명부 접수

-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 ☎ +82-64-710-8430, 710-8941~5
- ☎ (122 제주시 문진부 4·3지원)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보상지원)



"비전프로는 '내일의 공학... 애플 전환점 될 것'"

(쿠퍼티노[미 캘리포니아주]연 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 시간) 애플이 전날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해 미래의 공학이며, 애플의 '터닝 포인트'(전환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쿡 CEO는 이날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전 프로는 현재의 가장 진보된 전자 장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애플은 전날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스키 고글처럼 쓰고 컴퓨팅을 즐길 수 있는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를 "가상현실(AR) 플랫폼", "착용형 공간 컴퓨터"라고 설명했다.

쿡 CEO는 "비전 프로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일의 공학(engineering)"이라며 "우리는 미래에 살면서, 오늘 그것을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증강현실이 큰 아이디어이고, 심오한 기술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며 "비전 프로는 기술의 다음 장(next chapter)이자, 큰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7년여만의 연구 끝에 비전 프로를 선보였다.

그는 "영화나 TV, 스포츠에 몰입하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추억을 소환해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한 가지에 관한 것이 아닌 플랫폼"이라며 "이에 개발자들이 이를 위한 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공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쿡 CEO는 인공지능(AI) 챗봇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신도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며 "챗GPT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흥분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도 AI를 제품에 통합하고 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그런 기능을 AI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플도 챗GPT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도구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 큰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 어떤 경우에는 더 나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AI는 강력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이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쿡 CEO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

"시선 추적 · 몰입감 최고... 무겁고 메스껍기도"

(쿠퍼티노[미 캘리포니아주]연 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아쉽게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 기술에 대해 정보통신(IT) 전문 매체들은 대체로 호평을 내렸다.

지난 5일(현지시간) 비전 프로 공개 후 체험 기회를 가진 테크매체 기자들은 시선 추적과 몰입감 등에서 이 기기가 기존 제품과 차별됐다고 평가했다고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그러나 헤드셋 등의 무게감으로 다소 불편했고 심지어 메스꺼움이 느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격적인 이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IT 전문 매체 '테크 크런치'의 매튜 판자리노 편집장은 비전 프로에 대해 "혼합현실의 기능과 실행에서 진정한 도약"이라며 "움직임의 시선 추적이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상도가 높아 텍스트를 읽기 쉬웠다"며 "특히, 3D 영화는 하이 라이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영화를 볼 경우 화면이 100피트(30m)만큼 확장돼 첨단 공간 음향 시스템을 갖춘 개인 영화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테크 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의 닐라이 파텔 편집장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높은 해상도의 VR 디스플레이"라며 "정말 멋진 VR 헤드셋"이라고 극찬했다.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의 찬

스밀러 기자도 "눈과 손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영화나 TV쇼, 스포츠 게임을 할 때 경험은 정말 믿을 수 없다"며 고도의 몰입감을 높이 샀다.

벤 톰슨 테크 뉴스레터 스트래처리(Stratechery) 기자는 "나의 높은 기대를 넘어섰다"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자연스러웠는데 얼마나 높은 해상도인지 놀랐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소비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애플이 비전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세련되고 차별화됐고, 확실한 잠재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헤드셋과 외부 배터리의 무게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제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조안나 스텐 테크 칼럼니스트는 비전 프로를 쓰고 난 뒤 "코와 이마에 기기 무게가 느껴졌고, 약간 메스껍었다"고 말했다.

찬스 밀러 기자도 "30분 동안 쓰고 있었는데, 더 쓰고 있으면 무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짚었다.

와이어드(Wired)의 로렌 구드 테크 담당 기자는 "가상환경의 몰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면서도 외부 배터리가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헤드셋을 벗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했다.

3천499달러(45만원)에 달하는 가격 등으로 대중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업무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relins@ymail.com | relins@prescottandson.com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주 상원 560억 예산 승인, 세금감면안도 포함

세금감면안 구체항목은 논의 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상원이 25일 560억달러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번 예산안에 주요 관심사이던 세금 감면안은 수천만 달러의 금액만 따로 배정해두었지만 구체적인 전면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상원은 주지사가 최초 상정하고 하원이 통과시킨 2024년 예산안을 40-0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Conference Committee)를 구성해 새로운 회계연도인 7월 1일 전까지 계속 하원 및 주지사 등과 구체적인 항목을 두고 밀실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최종 마감기간까지 타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올해에는 10억달러 신규 백만장자 추가 부과세금의 사용처 그리고 불법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주내

학자금할인 혜택을 적용할지 여부 등 핵심의제를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3일간의 숙려기간 동안 상원은 수천만달러를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배정했다.

상원의 결산위에 따르면 상원은 400개의 수정안을 승인했으며 8천 2백2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최종 예산 규모를 559억달러로 확대했다.

상원이 최종적으로 추가한 예산은 최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물병을 감지하는 검사 장비 지원금, 교통 혼잡비용과 기타 대중교통비용 문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강제 퇴거 금지를 영구화 하는 하원의 법안 등이다.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562억 달러 예산과 달리 상원의 버전은 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료 점심을 지급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상원 지도부는 이 무료점심안

은 다른 지출항목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원은 온라인 복권을 공식화하는데도 반대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온라인 복권에 찬성을 표했으며 따라서 온라인 복권 합법화는 상하원조정 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지사는 상원이 제안한 불법 이민자 학생들의 주내거주 장학금 지급을 찬성하지만 이 안은 하원의 거부로 17년 전에 좌초됐었다.

상원은 세금감면안을 두고 의원들간의 의견이 갈렸다. 하원은 5억 8천7백만달러의 감면안을 미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향후 단계적 감면 증액을 통해 최종 10억달러 세금감면안으로 바뀐다. 상원은 예산안 설정 이전에 세금감면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자 최종적으로 5억7천5백만 달러 규모만 세금감면 항목으로 배정해 두었다. 다만 상원은 언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감면안을 발표할지 밝히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다트머스 연구진, 동북부 지역 혹독한 날씨 빈번해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지역을 비롯한 미 동북부 지역은 앞으로 극심한 날씨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 다트머스 대학의 신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인치 이상의 폭우 또는 진눈깨비 등 극한의 날씨가 이번 세기말까지 52% 증가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이끈 조나단 윈터 다트머스 교수는 기후변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폭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는 따뜻해진 대기가 훨씬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공기가 형성되면 비가 형성될 조건이 만들어진다. 더 많은 수증기가 포함될수록 더 많은 폭우가 강타하게 된다. 이 경우 극심한 강우로 분류된다” 고 그는 말했다.

윈터 교수는 이 같은 극심한 폭

우가 겨울 또는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겨울철 눈비는 두배가 될 것이며 기온이 따뜻해질수록 비 대신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될 것으로 봤다.

연구진들은 극심한 폭우나 폭설이 내리는 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 폭우 폭설시 그 양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윈터 교수의 연구는 지난 연구에 이은 것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극심한 폭풍우가 50% 증가한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발표했었다.

연구진들은 지난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눈 및 비를 바탕으로 기후모델을 만들었으며 이를 2070년에서 2099년으로 적용해서 시뮬레이션했다. 이들은 약 16개이 다른 기후모델의 결과를 비교했으며 이는 대부분이 일치하는 결과였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하체 운동하며 뱃살까지 빠지는 최고의 운동 - 브릿지 자세



오늘은 척추 건강과 자세 교정에 좋은 동작 이자 누워서 할수 있는 대표적인 하체운동인 '브릿지 자세' 를 배워볼 건데요, 하체 근력이 약하거나 무릎이 아파

평소에 서서하는 하체운동(스쿼트나 런지) 만 하면 무릎이나 발목이 아팠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으로 좀더 안전하게 하체운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알려드리는 다양한 브릿지 변형 자세로 하루 100개 챌린지에도 도전해보시면 단기간 뱃살 감량 효과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동작들은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5) 전신근력 챌린지/이건 무조건 100개...편을 찾아 따라해보시면 정확히 자극점을 느끼며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Basic Bridge - 코어 강화, 척추 강화, 자세 교정

1단계 두 무릎 세우고 발을 모두 바닥에 둔 상태에서 엉덩이를 무릎 쪽으로 끌어 올립니다.

2단계 들숨에 엉덩이를 바닥에 내리고, 날숨에 다시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어 둔근(허근육)을 조이는 느낌으로 수축합니다.



3단계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두발을 평행으로 유지하고 목이 불편하지 않게 턱을 살짝 가슴쪽으로 당겨주되, 턱과 가슴 사이에 달걀 1개 정도의 공간을 유지합니다.

4단계 엉덩이 들고 내리는 브릿지자세를 10회 반복합니다.

TIP! 허리가 무리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의 긴장감 유지하며(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기기) 안전하게 진행해주세요.

2. Figure 4 Bridge - 골반 스트레칭, 뱃살과 허벅지 토닝 감소

1단계 베이직 브릿지에서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 숫자 4모양을 만들어줍니다.

2단계 마찬가지로 날숨에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어 끌어올립니다.

3단계 10회 반복후 다리 바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4단계 두 골반의 평행을 유지하며 끝까지 복부 힘 쓰면서 바른 자세로 운동해주세요.



TIP! 옆으로 접은 무릎이 지나치게 천정위로 솟아 않도록 최대한 반대쪽 무릎과 같은 선상을 유지해주세요.

3. Frog Bridge - 안박지 토닝, 둔근 강화

1단계 이번엔 두 발을 모아 내로우 브릿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2단계 두 무릎을 붙인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를 들고 두 무릎을 벌려 둔근을 수축합니다.

3단계 들숨에 엉덩이를 내리고 날숨에 무릎을 벌려주기를 반복합니다.

4단계 10회 반복후, 휴식 없이 바로 다음 동작을 바로 진행해주세요.



TIP! 무릎을 최대한 서로 멀리 벌렸다 가 복부와 허벅지 안쪽을 조이는 힘으로 무릎을 붙여주세요.

4. Leg Circle Bridge - 옆구리 살, 허리 살 감량, 팔과 어깨 근력 강화

1단계 엉덩이를 내린 상태에서 한다리를 천정으로 올리고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2단계 한다리 서클이 끝나면 그다리를 천



정쪽으로 길게 뻗으며 동시에 엉덩이를 올려 브릿지 합니다.

3단계 레그 서클과 브릿지를 이어가며 10회 진행, 반대 다리도 해주세요.

4단계 브릿지 운동 후, 플랭크 변형 동작으로 코어운동을 마무리 해주세요(끝까지 영상 참고해 따라하기)

TIP!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의 브릿지 동작들을 영상을 보고 한세트씩 더 진행해주세요. 다리와 엉덩이에서 불이 나는 듯한 자극이 올 수도 있어요. 지극히 정상이니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100개 챌린지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 '기적의 다이어트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린이 결막염이고 광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과 박성진

- 2009년 수석주도
- 2020년 최우수

유담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통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유담 안과합격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7년 안경진 10만원
 - 시력검사(나안안경차량/타격격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경진 25만원
 - 극박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경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7년 안경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염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만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법)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장년 라섹
- 4. 다초점 안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담을 통한 예약시 해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담안과 Center for Real

1-844-CONUMED | 1-844-264-6264

010-3465-4040 | @damnara

damnara@naver.com | www.damnara.com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상승...S&P500 올 최고 경신 마감

(뉴욕=연합뉴스) 운영속 연합인 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강세가 지속되며 상승했다.

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8.59포인트(0.50%) 상승한 33,833.61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41포인트(0.62%) 상승한 4,293.9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3.63포인트(1.02%) 뛴 13,238.52로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재료 부재 속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강세 모멘텀이 유지됐다.

특히 대형 기술주인 아마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웰스과고는 아마존에 대해 매수에 해당하는 '시장수익률 상위' 의견을 유지하며, 아마존을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다. 이익률 변곡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목

표기는 159달러로 제시했다.

UBS도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실적 개선을 이유로 아마존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13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다. 아마존의 주가는 2% 이상 올랐다.

테슬라 주가가 4% 이상 오르며 10일 연속 오른 점도 기술주 강세에 일조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다. 회사가 납품업체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간 37만5천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계획이며 첫 후보군은 8월 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FOMC 정례회의를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캐나다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예상과 달리 깜짝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주초 호주중앙은행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이 크

게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은 점차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지난해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가 전주보다 2만8천 명 늘어난 26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30일로 끝난 주간 이후 약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3만5천 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실업 증가 소식에 국제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소형주들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러셀2000지수는 6월에만 7% 이상 올랐다. 이는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러셀2000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S&P500지수 내 임의소비재, 기술, 필수소비재, 헬스, 유틸리티 관련주가 오르고, 부동산, 에너지, 자재 관련주가 하락했다.

게임스톱의 주가는 최고경영자(CEO) 매튜 필롱이 해고되고 라이언 코헨 이사회 의장이 회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18% 가량 하락했다.

루시드의 주가는 회사가 중국에서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1% 이상 올랐다.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의 주가는 올해 2분기 단위당 총이익이 6천달러를 웃돌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5% 폭등했다. 이전 전망치는 5천달러 이상이었다.

카지노 업체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리조트의 주가는 제프리스가 두 종목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내리고 목표가도 각각 하락했다는 소식에 각각 1%, 0.2%가량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를 중심으로 중소형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BD8캐피탈 파트너스의 바비라도란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우리는 지금 뉴스 공백 상태에 있다. 실적은 끝났고, 부채한도는 해결됐으며, 다음 주 연준의 회의를 기다리는 상태다"라며 "연준이 일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이던스가 어떠한지, 화요일 나

는 CPI와 그다음 날 나오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어떠한지가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는 "밸리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추락했던 가치주와 경기순환주들이 약간의 로테이션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전체적으로 매우 건전한 움직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7월과 이후에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6월에 잠시 중단하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3.6%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6.4%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9포인트(2.08%) 하락한 13.65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초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가상화폐업계에 화난 SEC 위원장 "이런 의무위반은 처음 본다"

"가상화폐거래소, NYSE처럼 운영하고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칼을 꺼내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이 업계 전반에 퍼진 법규 미준수 풍조에 혀를 내둘렀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금융 업계를 40년간 지켜왔지만, 가상화폐 업계처럼 준법 감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공개하기 불편한 정보라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 창핑 최고경영자(CEO),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바이낸스는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코인베이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골드만 삭스 파트너 출신인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주식의 특성을 띠고 있다면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처럼 회사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최소 13개 가상자산이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증권법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FTX 붕괴 사태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갠슬러는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선거캠프를 거쳐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강의했다.

WSJ은 갠슬러 위원장이 MIT 재직 시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koman@yna.co.kr



"가상화폐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강조한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입증된 '메시효과'...류발표 후 티켓값 16배 ↑

(서울=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손꼽히는 아르헨티나 출신 리오넬 메시(35)의 미국 프로축구(MLS) 이적 소식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메시가 유럽 리그를 떠나 영국 축구스타 출신 베이비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MLS '인터 마이애미 CF'에 입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마이애미는 물론 상대 팀들의 경기 입장권 가격까지 수직 상승했다.

시카고 NBC방송은 "메시가 언제부터 인터 마이애미 소속으로 경기를 뛰게 될 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이적이 사실로 확인된 후 24시간 사이 입장권 가격이 빠르게 치솟

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장권 예매 사이트 틱픽(TickPick)을 인용 "지난 7일 하루 인터 마이애미 경기 입장권 가격이 하루 전날보다 16배나 뛰었다. 7월 21일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멕시코 '크루스 아술'과 맞붙는 북중미리그 컵 경기 입장권 가격은 하루 만에 29달러(약 3만8천 원)에서 477달러(약 62만 원)로 급등했다"고 부연했다.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The Athletic)은 7월 21일 경기가 메시의 MLS 데뷔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외에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된 인터 마이애미와 뉴욕 레드볼스의 경

기 입장권 '최저가'는 지난 5월 9달러(약 13만 원)였던 것이 현재는 347달러(약 45만 원)가 됐다.

오는 10월 4일 시카고 솔저필드에서 열리는 시카고 파이어 FC 대 인터 마이애미 경기의 입장권은 메시의 MLS 합류 소식이 전해진 날 하루 1만 2천 장 이상이 팔렸다고 지역매체 WGN TV는 전했다. 판매된 입장권의 최저가는 285달러(약 37만 원), 남아있는 표값은 500달러(약 65만 원)부터 시작된다.

오는 10일 시카고 파이어가 콜럼버스 크루와 벌이는 경기의 입장권은 현재 27달러(약 3만 5천 원)부터 살 수 있다.

chicagorho@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9th - JUNE 15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JEON"-UINELY THE BEST KIMCHI PANCAKES

Indulge in the taste of umami flavor and the irresistible crunch in every bite of these Korean kimchi pancakes! 한입에 먹기 좋은 아삭바삭한 맛있는 김치전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p>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틀포 망고 BOX \$12.99</p>	<p>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p>	<p>Kabocha 단호박 LB \$1.49</p>	<p>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p>	<p>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p>
<p>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키위 썬골드 키위 BOX \$28.88</p>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p>	<p>Ginger 생강 LB \$2.99</p>	<p>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p>	<p>Sweet Potato 고구마 LB \$2.49</p>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8.99</p>	<p>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큐용) LB \$2.99</p>
<p>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6.99</p>	<p>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2.99</p>
<p>Frozen Beef Ribeye Roll 냉동 소 등심 FAMILY PACK/LB \$7.99</p>	<p>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볶집 목살 스테이크 LB \$5.99</p>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4.99</p>	<p>Frozen Salted Atka Mackerel 자반 임연수 LB \$5.99</p>
<p>TONGTOMBAY Frozen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2 LB/PKG \$8.99</p>	<p>Frozen Whole Cleaned Calamari 한치 LB \$8.99</p>
<p>SUHYUP Frozen Cutted Pollock (Headless & Gutless) 수협 갈곰 코다리 17.63 OZ/PKG \$5.99</p>	<p>FR/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p>

SMART CARD MEMBER ONLY

<p>YECHON Korean Rice 예천 일품쌀 22 LB \$24.99</p>	<p>KWANGCHEON Green Tea Seasoned/ Green Layer 광천 녹차/ 청파래 녹차 김 0.71 OZ X 10 EA/BOX \$12.99</p>
<p>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BOWLS/PKG \$14.99</p>	<p>HAI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p>

<p>KYONG GI ME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 \$39.99</p>	<p>NONGSHIM Shin Noodle Soup/ Neoguri Udon Type Noodles 농심 신라면/ 너구리 4.23 OZ X 16 EA/PKG \$15.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p>	<p>CHUNG JU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프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5.99</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7.99</p>
<p>HAIO Soy Sauce 해오름 진간장 ALL PURPOSE 60.87 FL OZ \$3.99</p>	<p>S&B Golden Curry S&B 골든카레 MILD/HOT /MEDIUM HOT /EXTRA HOT 7.8 OZ \$3.49</p>	<p>CHUNG JUNGONE Seaweed Roll Original/with Leek 청정원 김말이튀김 /부추김말이 17.6 OZ \$4.99</p>	<p>BEOMCHON Spicy Cold Raw Fish Soup 범촌 포향 발효 물회 10.58 OZ \$3.99</p>	<p>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 OZ \$6.99</p>
<p>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CORN SOUP/ SWEET BEAN 5.65 OZ \$2.99</p>	<p>KWANGDONG Vita 500 광동 비타 500 3.38 FL OZ X 10 BTLS/BOX \$5.99</p>	<p>HELLO HOME Bliss Seersucker Summer Comforter 헬로홈 올리비아 데코 블리스 시어서커 여름이불 180 X 210 CM (QUEEN) BLUE/EA -\$79.99 \$49.99</p>	<p>GLASSLOCK Square Glass Container 글라스락 정사각 유리 컨테이너 920 mL/EA -\$9.99 \$6.99</p>	<p>Yellow Aluminum One Handle Pot 양은 편수 황냄비 20 CM/EA -\$13.99 \$9.99</p>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재봉
DIRECTOR
781.654.5281
jeel@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필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 | | | | | | |
|--|---|---|--|--|--|---|
| 
다이애나 김
617.217.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 
윤지 김
687.494.2043
eunji@bostonpremierrealty.com | 
니키 박
617.647.029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 
페이 니
617.793.7835
peini@bostonpremierrealty.com | 
키나 리
978.860.3246
k.lee@bostonpremierrealty.com | 
이삭 김
617.543.5728
isaac@bostonpremierrealty.com | 
사라 김
617.838.5727
sara@bostonpremierrealty.com |
| 
그레이스 김
617.555.778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 
진 김
617.877.0287
chin@bostonpremierrealty.com | 
현 김
617.538.5973
hyeon@bostonpremierrealty.com | 
민주 김
401.238.2007
minju@bostonpremierrealty.com | 
리사 김
213.500.3397
lisa@bostonpremierrealty.com | 
미키 김
413.507.1402
miki@bostonpremierrealty.com | 
명 김
781.800.2412
myung@bostonpremierrealty.com |
| 
선 김
781.690.4389
seon@bostonpremierrealty.com | 
한 김
781.89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 
사라 김
417.515.1142
sara@bostonpremierrealty.com | 
선 김
617.813.3349
sun@bostonpremierrealty.com | 
세온 김
617.852.7485
seon@bostonpremierrealty.com | 
짐 김
617.721.8088
jim@bostonpremierrealty.com | 
Tammy Woodfolk
917.224.0610
tw@bostonpremierrealty.com |
| 
미셸 김
617.235.2713
michelle@bostonpremierrealty.com | 
Shirley Zhou
687.251.05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 
Song Chen
518.277.5499
song@bostonpremierrealty.com | 
Xie Dale
415.572.0999
xie@bostonpremierrealty.com | 
Lu Jiang
248.445.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 
Nancy Wang
617.250.9157
nancy@bostonpremierrealty.com | 
Rishi Chopra
617.697.1131
rishi@bostonpremierrealty.com |
| 
Linda Tai
617.210.8859
linda@bostonpremierrealty.com | 
Jun Wang
648.273.2925
jun@bostonpremierrealty.com | 
Li Wang
617.998.7212
li@bostonpremierrealty.com | 
John Kim
617.333.8182
john@bostonpremierrealty.com | 
Francis Ph
617.855.1788
francis@bostonpremierrealty.com | 
Michael Somma
618.474.6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 
레이사 김
781.916.2839
lisa@bostonpremierrealty.com |
| 
이성진
857.280.0444
is@bostonpremierrealty.com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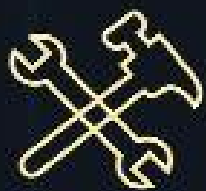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與, 민주 '이래경 논란' 이틀째 맹폭... "이재명 사죄 · 권철승 사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무슨 낯짝" 등 언급 권철승 향해 십자포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된 뒤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임명 당일 사퇴한 것을 고리로 이틀째 민주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아울러 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이 이 이사장 인선에 반발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나",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으로 언급한 것에도 비난을 쏟아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이사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편해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분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며 권 수석대변인 사퇴를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SNS에 올린 현충일 메시지에서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

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권 수석대변인을 겨냥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침몰한 항공모함 히류의 사령관 야마구치 다몬이 배와 운명을 함께 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일본 우익들이 만들어낸 멍청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그런 신조가 있다면 그건 이적행위다. 세상에 어느 해군이 함정이 침몰할 때 함장도 함께 죽으라고 하나"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586 싸구려 '겜성'에 일제 군국주의 망령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친북·종북적 인식에 기초해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억지와 궤변을 주장하고 생존 장병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천안함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를 신뢰한다'고 한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만은 입에 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의 데자뷰"라며 이 대표를 향해 천안함 관련 분명한 입장 표명과 당내 인사들 망언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minaryo@yna.co.kr



논평 발표하는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이래경 "천안함 자폭은 과잉 표현... '원인 불명'이 제 입장"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극단적 성향의 발언이 논란이 돼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자신이 과거에 썼던 '천안함 자폭'이란 표현이 다소 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이사장은 7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폭"이라고 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 출신인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으로, 정확하게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됐을 당시 페이스북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

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 위협으로 과장했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혁신위원장 해촉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원인 불명인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할 미 패권"이라고 했어야 한다"며 "미중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미국) 매파와 네오콘이 비행기구를 추락시켜 여론을 '반중'으로 몰아간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 한 매체에 보낸 기고문에 '코로나 진원지의 방향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는 "(중국)우한이 코로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ecocenter'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확산의 중심지와 바이러스 진원지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한 데 대해선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중앙정보국)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거세지는 '이재명 책임론'...민주, 혁신위원장 인선 원점 검토

'이래경 임명' 논란에 이상민 "이재명 리더십 문제...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박지원 "후 책임지라는 건 당 망하는 길"...지도부 "차기 인선 더욱 신중히"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낙점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 5일 임명 9시간 만에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당은 더욱 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 등을 돌파하고자 혁신기구 출범을 서둘렀지만, 계파 간 갈등만 더 도드라지게 됐다.

이 이사장 낙마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다.

이 이사장이 과거 극좌·반미 성향의 글을 SNS나 언론 기고에 실어 온 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알려지면서,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당 혁신 동력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이사장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혁신기구마저 친명(친이재명) 성향으로 채우려 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 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언급 등을 고리로 여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비명계는 더욱 강력하게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이사장의 사퇴는) 이 대표 리더십이 온전치 못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이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런 목소리가 결국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반면, 친명계 등 주류는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대신할 대

안이 없기 때문에 '분열은 필패'라고 주장하며 단일대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이 대표 책임론'라, '이 대표 아닌 누구랑 총선을 치르자' 하는 것은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이사장 인선을 놓고 논란과 잡음이 커진 만큼 차기 혁신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한바탕 흥역을 치렀으니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애초 당 내부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8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가운데)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돌아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마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외부 혁신위원장을 반대한다"며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원외 인사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SBS라디오 '김

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호 의원이나 (원래 지역구인) 서울 성동갑에서 혐지인 서초로 넘어가 싸우는 홍익표 의원 같은 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kjpark@yna.co.kr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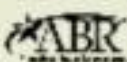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는 신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영역에 관한
정책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Foundation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됩니다.

본 광고는 이미 제작된 광고와 같으나 2014년에 광고주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THE COMMUNITY CENTER OF BOSTO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식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식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b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bdaveluy

하나님 기쁨 나누고
희락과 기쁨 나누고
대답 나누고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7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령

핸디맨 앤디
HANDYMAN ANDY

플러밍, 전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중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CHOICE 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Watertown
연매상 350K

781.883.5984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대부분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인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샵 컴퓨터 세팅,
설치, 홈페이지, 마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make@depweb.com
web: depweb.com

다들컴퓨터 781.858.1155, 781.727.4826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톤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섀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최



BEYOND BORDERS

미국 작곡가의 한국음악 다이어리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FRIDAY, 7:30 PM
JUNE 16

Sanders Theatre
Harvard University

45 Quincy Street
Cambridge, MA

www.kcsboston.org
usa-boston.mofa.go.kr

등록 후 무료 입장

문의 781-223-4411
무료 주차 제공

황종궁 아악
산조 (해금, 아쟁, 가야금)
Richard Carrick
JM Leclair
M Ravel
한국, 미국 민요

Richard Carrick, 작곡/지휘: 버클리 음대
Jae Cosmos Lee, 바이올린
Jacques Wood, 첼로
김수연, 플루트
주정현, 해금
김현채, 가야금
김유나, 아쟁
방지원, 장구
Miro Magloire, 안무
Anabel Alpert, 무용
Nicole McGinnis, 무용
Megan Foley, 무용
Rachele Perla, 무용
Amber Neff, 무용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40) 신용등급(Credit)의 중요성

미국 자동차 5대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용등급이 불량한 개인은 등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65% 더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등이 전혀 없어도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두(2) 배 이상 내는 경우도 있다.

신용등급에 관해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과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 (25 Bad habits that hike up your credit score, Morgan Quinn, GoBankingRates, April 23, 2023)을 함께 나누어 본다.

신용등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았는지를 볼 수 있는 신용기록(Credit History)이다. 신용등급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늦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청구서(Bill)를 갚는 것이다.

현대인은 바쁘게 산다. 살다 보면 깜박 잊을 수가 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이

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자동으로 갚는 방법(Automatic Payments)을 형성해서 정해진 날짜에 은행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10,000이고 매달 외상 액수를 갚으면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신용회사는 카드 한도액과 쓴 빚을 함께 계산한다. 한도액 \$10,000에 대해서 \$1,000을 사용하면 10%이며 \$2,000을 사용하면 20%이다. 이것을 사용 비율(Utilization Ratio)이라고 하며 이 숫자가 적을수록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율을 한 자리 숫자, 즉 1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를 취소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반대이다. 과거 좋았던 신용기록이 없어지고 장기간 보유했던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높아져 사용하지 않는

카드(Netflix 등)와 같이 매달 사용료를 자동으로 갚는 것으로 설정해 놓으면 신용기록이 장기간 보존될 수 있다.

가게에서 큰 물건을 살 때 가게 신용카드를 열면 몇 퍼센트 절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산 다음 신용카드를 취소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가게 신용카드를 열 때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시적인 절약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집 대출을 위해서 여러 대출회사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대출회사를 확인(Shopping)해도 신용등급 확인 신청을 한 번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여러 회사를 확인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신용등급 보고서’ 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기록이 잘못될 수 있다. 빚(Debt)을 전부 갚았는데 빚이 남아 있다고 잘못 기

재되면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이 점을 확인하고 기록이 잘못된 모든 회사와 접촉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것이 신용등급을 단기간 내에 올리는 방법이다.

일부 사람은 빚이 있는 것이 부담되어 현금으로 물건을 산다. 건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등급을 향상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용등급 회사는 자그마한 돈이라도 제때 갚아 나가고 있는 장기적인 기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은 물론 집 보험과 자동차 대출 등 여러 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더 많은 돈을 절약(Save)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Credit Card)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숙부 김위흥은 김만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서로 사통하고 있었다. 또한 김위흥은 왕위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상대등의 권력으로 조카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지원했지 않았을까? 삼국사기에는 김위흥이 진성여왕의 정부이자 권력의 실세로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의 ‘왕력’ 편에는 진성여왕의 남편으로, ‘기이’ 편에는 진성여왕의 유모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김만은 어릴적 숙부 김위흥의 아내인 부호부인(婦好夫人)의 양육으로 자란 후, 숙부인 김위흥과 사통하게 되었고, 왕위 오른 후(또는 그 이전에)에는 숙부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위흥은 진성여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888년에 사망하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다(그의 형 경문왕 김공림이 841년 경에 태어났기에, 846년이란 기록도 있다. 그는 그 이후에 출생하였으니 40~45세 무렵에 사망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죽기 전에 소랑리(少梁里)의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888년 2월).

진성여왕은 즉위와 함께 선정을 펼치면서 전국의 모든 주와 군의 세금을 1년간 면제해 주었다. 하지만 888년 2월 남편이자 숙부인 김위흥이 죽으면서 왕의 선정은 보이지 않았다. 죽은 김위흥은 혜성대왕(惠成大王)이라고 추증하였다. 진성여왕은 김위흥이 죽은 이후부터는 곱상하게 생긴 젊은 남자들 두 세명을 몰래 궁으로 들여 음란한 생활을 했고, 게다가 그들에게 벼슬을 내려 중요한 국정을 맡겼다.

그러니 왕 옆에는 아첨하고 요행을 바라며 방자하게 구는 자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공공연히 행해졌으니 상벌이 불공정하여 기강이 무너졌다. 이에 당시 조정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붙이는 백성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왕명으로 ‘범인’ 을 잡아들이라고 하였지만 색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대야주에 사는 왕거인이 모함을 쓰고 잡혀와서 하옥되었다. 그리고 곧 그를 처형하고자 하니, 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옥의 벽에 다 글을 썼다. “우공(王公)이 통곡하니 3년이 가물었고 추연(鄒衍)이 비통함을 머금으니 5월에 서리가 내렸다. 지금 나의 깊은 근심을 돌아보면 옛일들과 비슷하네 높은 하늘은 아무 말도 없이 창창하기만 하구나!”

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 그날 저녁 홀연히 구름과 안개가 끼고 천둥이 치며 우박이 떨어졌다. 돌변한 날씨에 두려운 왕은 하는 수 없이 거인을 방면하였다.

진성여왕은 재위 9년째인 895년 10월에 제49대 헌강왕의 서자이자 자신의 조카인 김요(金嶮)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882년경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수레에 타게하여 유궁(玉宮)으로 만든 임금의 행궁)에 가서 야합을 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嶮)이다. 요는 성장하면서 체구와 용모가 크고 뛰어났다. 그 소문을 들은 진성여왕은 세자에 책봉하기 전에 요를 불러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나의 형제자매들은 뼈의 생김새가 특이한데 이 아이의 등위의

두 뼈가 불룩하게 일어나 있으니 진실로 헌강왕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진성여왕은 재위 11년째인 897년 6월 “지난 몇 년 이후 백성들이 곤궁하고 도적이 별때처럼 붕기하니 이는 나의 부덕함 때문이다. 어진 이에 양위하고 물러나려고 한다” 라 말하고 태자 김요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김요가 제52대 효공왕이다. 14세 무렵에 즉위하였다.

왕위를 선위한 진성여왕은 동년 12월에 사망하였다. 아버지 경문왕이 20세 무렵인 861년에 결혼하고 즉위하여서 오빠인 헌강왕과 정강왕 그리고 언니인 김명을 낳았기에 진성여왕은 아마도 866~870년 무렵에 태어났다. 그러니 그녀는 30세 전후에 사망하였다. 역사적 평가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능한 여왕으로 후삼국시대를 열게 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에 동시대에 살면서 894년(진성여왕 8년) 왕에게 ‘시무(時務)’ 를 올린 최치원은 그녀를 성군으로 기록하고 있다. 어쨌든 그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아서 왕위를 스스로 선위한 몇 안되는 군주이다. 특이하게도 신라의 세 여왕은 모두 불임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오빠인 제50대 정강왕이 남긴 유언에 의해서이다. 이에 앞서 정강왕의 형인 헌강왕이 875년에 즉위하여 886년에 사망하였다. 헌강왕에게는 딸만 둘이 있고 적자는 없었다. 다만 서자인 김요가 있었는데, 당시 그는 두살 쯤 되었다. 김요가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헌강왕의 동생인 김황(정강왕)에게로 이어진대 대해서는 김요가 서자로 진골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것 보다는 아마도 그가 너무 어렸기에 동생인 정강왕에게로 이어진 것 같다. 정강왕은 1년간 재위하고 후사가 없이 병사하였다. 그러니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김요는 당시 세 살 밖에 되지 않았고, 아버지 경문왕의 동생인 김위흥이 상대등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다. 아마도 정강왕은 차기 왕위가 숙부에게로 가기보다는 여동생 김만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다. 정강왕이 그의 유언을 상대등인 숙부 김위흥에게 전하지 않고 시종인 준흥에게 전한 것으로 보아 더욱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왕위는 여동생 김만에게로 갔지만



SPECIALS

from the

GANGWON PROVINCE

강원도 농특산물 대전

Experience the nostalgic countryside flavors from Gangwon.
Limited time exclusive pricing to share with all.

JUNE 9TH - JUNE 22ND, 2023

Sokcho Style
Myungtae
Bibim/Cold
Noodles

속초식
명태회
냉면/비빔냉면

\$7.99

BIBIM - 1.72 LB
COLD - 2.78 LB



NAELINCHUN Oats/Black Bean/
Black Rice/Brown Rice

강원도 내린천
귀리쌀/서리태/현미/흑미 2.2 LB

\$5.99-12.99

MAEHONG
L & F
Nurungji
Scorched
Rice/Barley

매홍 L & F
솔뚜껍/보리
누룽지

\$5.99

BARLEY - 1.54 LB
SCORCHED RICE - 1.76 LB



MILWON Anheung Potato/
Mugwort Potato/Pumpkin Potato Cake

밀원 안흥 감자떡/숙감자떡/호박감자떡

\$3.49

1.32 LB

BONGPYUNG
15 Roasted
Grains
Powder

봉평촌
십오곡
미숫가루

\$5.99

2.2 LB

33 Tteokbokki Original/Seasoned
Baby Octopus & Tteokbokki

삼삼
떡볶이
오리지널/
맵달한
쭈꾸미
떡볶이

\$3.99 \$10.99

ORIGINAL 1.24 LB
BABY OCTOPUS 1.32 LB

SEOKWANG
NONGHYUP
Butter Dried
Pollack Snack

서광농협
자연맛본
버터 황태스낵

\$2.49

0.7 OZ

TIGAKTEGAK
Crispy
Seaweed
Bugak

티각태각
바삭고소
김부각

\$4.99

7.76 OZ

TIGAKTEGAK
Fried Sweet
Rice Crackers
Injeolmi/
Churros Flavor

티각태각
후라이드 누룽지
인절미맛/
츄러스맛

\$3.99

7.05 OZ

HOMSRANG
Dried
Korean Herb/
Gondre Potato
Bap Mix

강원도 홈스랑
강원나물밥/
곤드레감자밥
쉽게 만들기

\$6.99

HERB - 1.58 OZ
GONDRE POTATO - 1.9 OZ

Seasoned
Pollack

황태종가식품
안영숙
황태양념구이

\$9.99

10.58 OZ

Pollack
Soup

황태종가식품
안영숙
황태 해장국

\$2.99

1.1 LB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이 칼럼은 저자인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요즘 마켓 어떤가요?

“요즘 마켓 어떤가요?” 가 항상 내가 받는 질문이다.

그리고 내 칼럼을 보시면 일년에 두번은 이 주제로 칼럼을 쓴다. 매일 바뀌는 이율처럼 마켓도 매일 바뀐다는 걸 꼭 인식하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안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 부동산 중계인으로 먹고 사는 나는 이점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건은 없고 물건이 나오자마자 벌떼들처럼 모여 들어 아직도 핫한 마켓이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전에도 마켓은 무지 핫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브프라임을 맞으면서 마켓이 반쪽 나기도 했다.

그럼 2008년에 서브프라임 때와 오늘에 마켓을 한번 오늘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지난간 마켓을 알아야 현재에 마켓을 이해 하기가 쉽다.

정확히 1996년부터 마켓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 상태가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난이

걸 10년 간격마다 오는 마켓 변화라고 표현한다. 2000년부터 은행에서 무조건 집값에 30%만 다운하면 NO DOC PROGRAM 이라고 해서 무조건 70%를 빌려 주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에 은행에 있었다.

이때 학생이든 인컴이 없는 분들도 집을 다 샀다. 이 문제가 서브프라임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더 이상 못하시는 분들은 이때(2007년부터) 집을 다 내 놓았다. 한 타운에 집이 나와 있는 수가 40 채 이상이였다. 그러다가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서 대부분에 집들은 Short Sale로 해결을 보았다.

이 상태가 2011년까지 계속 되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California, Florida같은 곳은 50%까지 내려 갔던 기록이 있다. 2012년부터 낮은 이자율과 닷컴의 시작으로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부동산 마켓은 햇빛을 보기 시작했다.

8%에 이율은 점점 더 내려 가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은 이때 NO

DOC PROGRAM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었다. 한번 서브프라임 때 배운 레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2% 이율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나 더 밥상에 반찬은 팬데믹 이었다. 사무실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팬데믹이다. Amazon 달리버리가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아도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큰 집을 원해 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2000년도에 보았던 30%만 다운 하면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20여년 전 이야기이다. 지난 15년간 집을 사신 분들은 다 인컴이 있으셨던 분들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집을 사신 분들은 다 3% 밑으로 이자율을 내셨다. 현재 7%정도에 이자율을 내면서 집을 늘려 갈 분들은 없을 것이다. 이점이 집이 안 나오는 큰 이유이고 그

러므로 매물 부족(inventory shortage)이 일어난 수 밖에 없다.

이점이 서브프라임 때와 다른 점이다. 올해 두 번 더 이율이 올라 갈 것이다. 이게 지금의 마켓을 좀 정리해 주길 원하는 바램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6월 11일 - 6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 운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 금전: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배우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사랑이 영글어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소띠 | 한 우물만 파야

- 운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 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여기저기로 분산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우물만 파야 귀한 물을 얻게 됩니다.
- 애정: 불만 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해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6일 길일. 15, 17일 주의.

범띠 | 변화의 물결이

- 운수: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잘 살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피해가야 합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미룰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같았던 감정에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4, 17일 길일. 13, 16일 주의.

토끼띠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 운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소 불편하던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 금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득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온전히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사란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4일 길일. 11, 17일 주의.

용띠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 운수: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 큰마음을 먹고 언젠가 큰 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1, 13일 길일. 12, 14일 주의.

뱀띠 |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 운수: 이미 떠나면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머릿속의 계산으로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현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괜히 떠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6일 주의.

말띠 |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 운수: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기에 좋을 때가 왔습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세요.
- 금전: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문 두문 모아둔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양띠 | 안전한 편을 택해야

- 운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시기가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행동해야겠습니다.
- 금전: 모험이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투자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 애정: 조금만 더 일찍 그만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원숭이띠 |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 운수: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었던 곳에서 소식이 옵니다. 드디어 바라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던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둘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닭띠 | 행복하게 해주는

- 운수: 큰 걱정거리도 없고 주변 여건이 안정된 상태이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아프던 사람은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 금전: 실보다는 득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때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개띠 |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 운수: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금전: 시팅발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혹해서 잘못 따라가다가는 손해 보게 됩니다.
- 애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돼지띠 |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 운수: 운수;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걱정으로 체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을 때입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26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10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1/20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강동원, 조선시대 검객으로 액션 연기... 넷플릭스 영화 '전, 란'

(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배우 강동원이 조선시대 노비 검객이 돼 액션 연기를 펼친다.

넷플릭스는 7일 영화 '전, 란'(戰, 亂)의 제작을 확정했다며 캐스팅을 공개했다.

이 영화의 제작에는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다. 박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신철 작가와 공동 집필했다.

넷플릭스는 "박찬욱 감독과 넷플릭스가 함께하는 첫 한국 영화"라고 설명했다.

'전, 란'은 임진왜란 때 조선 최고의 무신 집안 아들인 '종려'와 그의 몸종 '천영'의 이야기다. 종려는 임금의 최측근 무신이 되고, 천영은 의병이 된다.

노비의 신분이지만 뛰어난 검술로 의병이 되는 천영 역에는 강동원이 캐스팅됐다. 강동원은 이 영화에서 역동적인 액션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과에 급제해 선조의 호위 무사가 되는 종려는 박정민이 연기한다. '전, 란'에서 종려와 천영은 신분을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지만, 각각 무관과 의병이 되면서 적으로 마주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백성을 버리고 피란을 가고 전쟁이 끝나서는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선조 역은 차승원이 맡는다.

군센 의지의 의병 '범동' 역에는 김신록, 민중을 이끄는 양반 출신 의병장 '김자령' 역에는 진선규, 잔혹한 왜군 장수 '겐신' 역에는 정성일이 캐스팅됐다.

'전, 란'은 김상만 감독이 연출했다. 라디오를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 '심야의 FM'(2010), '걸스카우트'(2008) 등이 그의 전작이다.

넷플릭스는 이 영화에 대해 "격동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라마에 전투와 추격 액션을 더해 장르적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ljglory@yna.co.kr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빌보드 싱글 11주 연속 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1주 연속 진입했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큐피드'는 전주보다 세 계단 하락한 23위를 기록했다.

K팝 걸그룹 노래 가운데 '핫 100' 차트에서 10주 이상 머문 곡은 '큐피드'가 최장다.

'큐피드'는 '글로벌 200'에서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3위,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2위를 기록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최선을 다하는 마음

길을 걷다 산책길에 나무들을 만나면 어찌 그리도 모양새나 색깔 나무껍질의 무늬마저도 제각각인지 모를 일이다. 멀리서 보면 모두가 '나무 색깔'이라고 여겨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모양이나 무늬가 참으로 신기하다. 어느 나무들은 울퉁불퉁 잘려져 나간 모양처럼 고목도 아닌 것이 고목인 모양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훅 훅리는 느낌이 들게도 한다. 모두 남의 눈치가 아닌 각자의 생김새와 방법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가 싶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제 색깔과 모양과 무늬와 목 소리를 내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그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 마음의 병도 되고

몸의 병도 되는 것이라. 그것 또한 자신의 몫인 것이다. 곁에서 제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을 챙기는 일보다 우선 나 자신을 먼저 제대로 잘 보살피며 사는 일이 상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일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얘기한들 얼마나 자식에게 마음이 전달될까 말이다.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이 아프다고 안쓰러운 마음이야 있지만, 당사자의 그 아픔을 서로가 어찌 알겠는가 말이다. 아픈 사람의 서러움만 더욱 커진다. 몇 년 전 늦가을 새벽 골프를 즐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던지 다리가 아파 1년을 고생한 때가 있었다. 그 아픔은 남편이나 자식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다. 괜스레 짜증만 내고 속

만상하고 서운하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나의 인식은 아주 많이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선 나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기로 말이다.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어른들이 쉬이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 건강건성 듣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니 내 몸 내가 잘 챙겨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들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 내색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앓는 소리를 참아보려다가도 할 수 없이 새어나오는 신음을 어찌하란 말인가. 누군들 젊은 시절이 없었을까. 그 펄펄하고 건강했던 시절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

나 늙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그 마음을 알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한테도 적당하게 하자. 그 무엇일지라도 오버하지 말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큼이면 족하지 않을까 싶다. 형제, 자매도 그렇지만 친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돕게 되지만, 정도를 넘으면 서로 불편한 관계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잘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 친구는 서운함에 새로운 아픔의 골이 생기는 것이다. 관계란 이렇듯 참으로 어려운 숙제임이 틀림없다. 다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족한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노래하는 대통령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미국인이라면 악기라면 몰라도 가장은 쉽지는 않을 수도

탈춤을 추자 (탈춤 중에서, 송골매 노래)

오래전 일이다. 한국에 출장을 갔을 적이다. 미국인 동료 두셋과 같이 했다. 일을 끝내고, 저녁을 마친후였다. 무료한 시간을 때울 양, 호텔 지하층에 노래방에 데리고 갔다.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전주에 모두가 머뭇거렸다. 그러나, 웬걸. 맥주 한잔에, 너나없이 모두 마이크를 잡겠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 역시 웃음이 나왔는데, 그동안 그들도 노래할 기회가 없었던 거다. 물론 흘러간 팝송이 주었다. 어디 노래와 악기뿐이라. 한국

김영삼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적이다. 백악관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춤을 권했다고 했다. 당연히 한국대통령은 손사래를 쳤고, 춤이라니 당치 않은 이야기였던 거다.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폰연주는 그럴듯하다고 했던가.

이젠 대통령이라면 춤이건, 노래건, 악기건 모두 하나쯤은 연주하고 한국 춤은 부를줄 알아야 하는 모양이다. 외교에도 노래가 한몫하는 세상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시편 98:5)

피아노 치는 대통령. 몇해전 한국 영화제목인데, 노래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 이 역시 보기도 그럴듯 하다.

한국신문 사진에서 봤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적이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 거다. 노래하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사뭇 즐겁다. 옆에서 시종들던 서버가 웃고 있는데, 터져 나오는

웃음이야 어찌 막을 수 있으랴.

노래에 대한 답례는 아닐터. 그러나 백악관 선물로는 기타를 받았었다 했던가. 하긴, 오래전엔 너나없이 통기타에 매료되어 있었다. 이름난 정치인 사진도 있다. 그가 하숙집 마루턱에 앉아 기타를 안고 있는 사진이다. 그즈음 아유회를 갈적이면 교외선 기차안에서 몸을 비틀었다. 기타 반주에 맞추는 거다.

있겠다. 그러나 한국인이면 누구나 노래를 즐길 수도 있겠다. 아마 그건 노래방 덕분일게다. 아니 노래를 즐기지 않는다면 노래방도 생기지 않았을터. 춤도 빠지지 않는다.

소매자락 휘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한삼자락 휘감으며 비틀비틀 춤을 추자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환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자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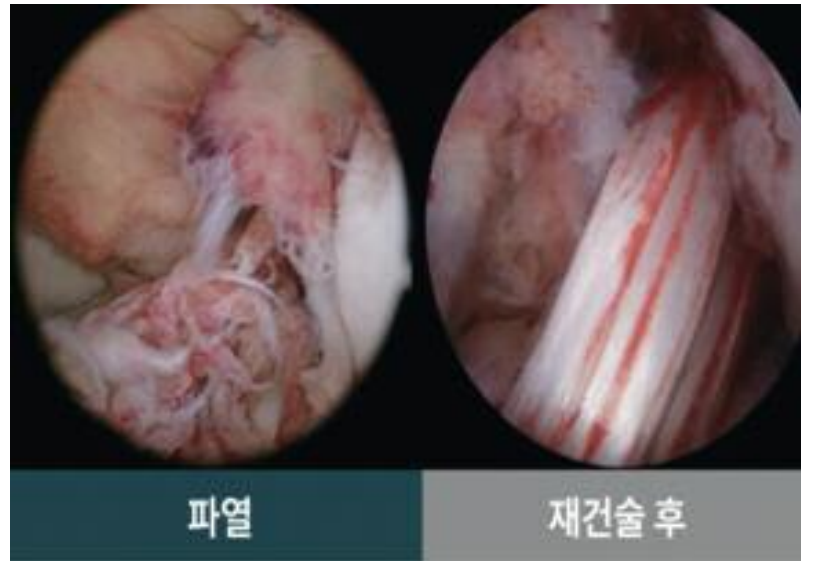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eamkorea)
이메일 : huream@huream.kr
홈페이지 : www.hure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신세계서울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하면 생기는 족저근막염, 간단한 시술로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영상의학과 이상환 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을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에 반복적인 손상이 쌓여 염증이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족부질환으로, 발의 아치 유지와 발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하는 족저근막에 손상이 생기는 상태다.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신체 활동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신체 운동에 사용되는 부위는 바로 발이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체중증가로 발에 가해지는 부하가 늘어나거나, 하이힐 등 불편한 신발을 장기간 착용할 때,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쉽게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스포츠나 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족저근막염 환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2년 138,583명이었던 환자수가 2020년에는

250,82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는 50대 발병률이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가량 많이 발병했다.

흥미로운 점은 족저근막염 증가추세가 국민체육활동 참여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 운동과 족저근막염의 상관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을 보면 주 1회 이상 체육활동을 한 경우, 2013년 45.5%에서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66.6%로 약 1.5배 증가했는데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은 60.1%로 소폭 감소했다. 족저근막염 추이 역시 2019년 27만여명의 환자수가 코로나로 야외활동이 줄어들어 2020년 25만명으로 줄어 체육활동 참여율과 함께 동반 감소한 것이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바닥 안쪽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안쪽 경계를 따라 발바닥 중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내디딜 때나 오래 앉아 있다 갑자기 일어서 걸을 때 심하게 통증이 느껴지며 많이 걸을수록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에는 약물과 보조기 착용,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과 같은 보존치료를 시행하고, 만약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하면 족저근막 절개술과 관절내시경을 이용하는 유리술 등의 수술적 방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기존의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 외 족저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간편한 시술법인 미세동맥색전술(TAME: Transarterial micro embolization)이 있다. 이 시술은 만성 염증성 통증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비침습적 시술로 족저근막염 치료에 적합하다.

실제로 최근 유명 프로축구 선수 2명이 족저근막염으로 이 시술을 받고 2~3개월 만에 경기를 뛸 정도로 완쾌된 사례가 있다. 당일 시술 후 통증이 바로 50% 가량 감소되며 6개월 후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재발 가능성도 없다. 국소마취로 시행하고 당일 시술과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타미(TAME) 시술은 환자의 대퇴동맥을 국소마취한 후 가느다란 미세도관을 발병 부위인 발바닥 족저근막염 주변 동맥으로 진입하며 시작된다. 카테터와 화이어가 족저근막염 주변 동맥으로 진입하면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염증혈관을 찾아낸다. 해당 부위에 색전 물질을 염증 부위로 주입해 영양분과 산소, 염증 물질을

공급하는 염증 혈관을 막게 된다. 결국 염증을 소멸시켜 통증을 반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주로 3개월 이상 지속된 무릎, 어깨, 골반, 팔꿈치, 손목, 발목, 비특이적 허리 통증,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손발가락 관절염 등 각종 만성통증 관절염과 근육통 및 건염 치료에 가능하다. 최근에는 육상, 축구, 배구, 역도 등 각종 종목 선수들의 아킬레스건염, 발목 통증 등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어 간편한 시술과 빠른 회복이 중요한 전문 운동 선수들의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운동 많이 하면 생기는 족저근막염, 간단한 시술로 치료 가능”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감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결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c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아껴냅시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권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동편, YOUTUBE

\$34.99

V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동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권상품 1년 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인양뉴스TV MBN JTBC / JTBC플러스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가족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민들레의 계절

글: 민유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얼굴 들고 모두/ 환하게 웃고 있네.”

풀밭에 무리지어 노랗게 피어있는 민들레를 보고 어느 시인이 쓴 동요의 한구절입니다. 한국의 대표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님도 “길가에 민들레는 노랑저고리 첫돌맞이 우리 아기도 노랑저고리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 보아라 아가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민들레가 지천으로 핀 계절에 걸맞는 이야기 하나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은 불행하게도 일생에 단 한번만 명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임금이면서도 신하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너무 답답하여 봄바람부는 어느날 임금님은 궁궐밖 세상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무런 지위나 권력도 없이 평범한 백성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하며 자유롭게 사는 모습에 한나 임금인 자신은 단 한번밖에 명령할 수 없는 운명을 주신 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났습니다.

밤늦게 궁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찌지 못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 습니다. 하늘에는 못한 별들조차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아 더욱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별들은 모두 땅으로 떨어져 버려

라!” 그러나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은 임금님 생애 단 한번의 명령이 되어 별들은 그 즉시 땅으로 떨어져 노란 민들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민족에게나 나름대로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기 마련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신이 주신 명령이나 사명은 지엄하여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독교 사상이 팽배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새겨볼만한 전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Dandelion이라고 하는 민들레는 국화와 다년생으로 겨울에 줄기는 죽지만 이듬해 다시 살아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치 밟혀도 다시 꺾꽂히게 일어나는 민초(民草)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토종 민들레는 흰색꽃을 피우지만 우리가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보는 노란 민들레는 유럽이 원산지인 서양 민들레로서 그 생태나 효능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해열, 소염, 이노제로 쓰이기도 하나 특별히 뿌리나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즙의 쓴맛은 고미건위(古味健胃)라고 하여 위장이나 간, 변비의 치료제로 높이 평가받기도 하며,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민들레를 캐러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길가나 노약을 많이 뿌리는 과수원 주변에서 채취하는 일을 삼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그로서리에서는 온실에서 재배한 것 같은 Dandelion잎을 판매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샐러드나 수프의 재료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화장찬 봄날을 택하여 햇볕에너지 잔뜩 받은 민들레를 캐어 잎이나 대는 살짝 데쳐 고추장 양념하여 나물로 먹고, 꽃송이로는 술을 담그기도 합니다. 적당히 숙성된 민들레 술잔에 갖피어난 노란 민들레 한송이 띄우면 그 씩살한 맛과 운치가 일품입니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민들레가 글의 소재가 된다는 이유로 우리 한국과 달리 잔디밭가꾸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민들레에게 강력한 제초제를 뿌리는 미국에 살면서 문화의 차이를 실감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란 꽃말이 전해지는 민들레에 대한 성경적 전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말대로 땅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권고를 듣지않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였으나 때는 늦었지요. 모든 생명들은 물이 목까지 차올라 곧 죽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들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는 민들레는 조용히 기도로 애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민들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잠시 비를 멈추시고 바람을 불어 민들레씨를 노아의 방주위에 살짝 올려 놓으셨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쳤습니다. 다시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민들레씨를 양지 바른 곳으로 보내 썩이 트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민들레는 하나 | 미끼 “감사하는 마음” 을 전하기 위하여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지요.

전 문화체육부장관이었던 도종환 시인은 “민들레는 더국 말말이/ 더욱 진지하게/ 낮은 곳을 찾아서/ 뿌리를 내립니다.” 라고 민들레의 겸손을 노래합니다.

민들레 꽃처럼
유/유난히 빛나지는 않아도
선/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회/회장의 임무를 다하던 모습
장/장하고 장하여라

보스톤한미노인회 회장 임기를 끝내는 나에게 보내주신 박필수 시인의 과분한 인사에 저 역시 “감사한 마음” 을 전하여 드린 것이 2010년이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2023년 봄,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빠른 세상임에도 여전히 지천으로 핀 민들레를 보며 “민들레의 강인함으로/민들레의 소박함으로/그리고 민들레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리라” 는 각오를 하며 또 하나의 “민들레 계절” 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여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여서는 숙박 혜택 및 주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eamkorea

huream@huream.kr / www.huream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반대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